

동정? 혐오? ...쪽방촌을 바라보는 시선

누가 빈곤의 도시를 만드는가

탁창한 지음

“저널리즘에 노출되는 빈곤의 모습도 실제 빈민이 처한 상태를 사실적으로 가감 없이 보여 준다기보다는 치열한 경합을 거치며 생존한 서사일 것이다. 미디어로 생성되는 가난에 대한 인식은 그 서사에 걸려 있는 특정한 이해(利害) 관계에 밀바탕을 둔 이해(理解)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생하는 사실에 대해 의도적 선택과 배제를 거치면서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서사는 주어진 사건을 대중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에 기초적 자료가 된다.”

요즘 핫이슈가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부동산’일 것이다. 벼락거지, 영끌, 도시빈민 등과 같은 말들이 일상화가 될 만큼 집(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문제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일 만큼, 주거 공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사투 치열하고 논쟁적이다.

빈부격차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양상이다. 탁창한은 쪽방촌 사람들에게 대한 견고한 애착을 견지하는 연구자다. ‘빈곤에 저항하는 그리스도교’의 저자이기도 한 그가 이번에 펴낸 ‘누가 빈곤의 도시를 만드는가’라는 책은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쪽방촌, 특히 주거에 대한 문제는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환기됐다. 빈곤에 대한 강렬한 서사는 세계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쪽방 중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적 여론이 형성됐다. 쪽방촌은 빈곤의 도시, 아니 빈부격차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다. 이곳을



세계적인 화두가 된 빈부격차는 쪽방 중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경고다. 도시 빈민의 문제를 다룬 영화 ‘기생충’.

고도 자본주의의 마천루 사이에 끼여 있는, 어찌 보면 모순적인 풍경과도 같은 곳이다. 책에는 빈곤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 소유한 사람들, 빈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다면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내용들이 담겨 있다.

저자는 그동안 쪽방촌에 대한 지배적인 기억은 ‘가난의 상징’이었으며, 이를 우리 사회가 소비해왔다고 본다.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민생탐방을 명분으로 찾아와 위로를 건네는 연출을 했다. 연말이면 대기업 임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일회성 봉사와 아울러 물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또 어떤 이들은 ‘빈자의 미학’으로, 각박한 세상의 사람 냄새 나는 공동체로 환기한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가난하고 열악하고 불쌍하지만, 반면 따뜻하고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수사가 바로 그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존재로 쪽방촌을 바라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복지병’에 걸린 무례한 존재라는 냉소적 시

각이 그러한 예다. 더러 철거민은 구조적 희생양이라는 시각보다는 ‘뺨밥’을 쓰는 집단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저자는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남일당 화재의 결정적 원인이 불명확함에도 그것이 경찰특공대의 잔혹하고 무리한 진압보다는 오히려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이었다는 취재 내용이 연일 보도되었다”고 부연한다.

오늘의 시대 빈곤의 도시는 동정의 대상이다. 동시에 흑여 자신도 저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 혐오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저자는 쪽방촌 공간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불도저식 잭대에 쉬이 복종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그러면서 “엄연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이곳의 세입자들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자기들의 동네와 생태계를 잃지 않고 지켜 내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필요한책·1만5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적에 기적이 더해진 일...정겹지만 힘겨운 동네서점 운영기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유희경 지음

“그러니까, 이 책은 여기 시집서점 윌트 앤 시니컬이, 당시 덕분에 잘 있었다는, 잘 있을 거라는 안부 같은 것이라 생각해요.”

책 속에 등장하는 이 글귀를 보고 금방 고개가 끄덕여졌다. 동네 서점이나 지역의 오래된 가게들에 오랜만에 들르게 될 때면 그 사이 문을 닫지는 않았을가 걱정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건네질 때 안도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윌트 앤 시니컬’은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 서점 중 하나일 터다. 이 곳은 유희경 시인이 지난 2016년 문을 연 시집 전문 서점이다. 처음 신촌의 커피



숍 한 공간을 빌려 ‘숍인숍’ 형태로 문을 열었고,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인 혜화동 동양서림 2층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유 시인이 잡지와 서점 블로그 등에 쓴 글을 모아 산문집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을 펴냈다. 요즘 핫 트렌드 중 하나가 동네서점이다. 윌트 앤 시니컬에도 한 두 달에 한번은 ‘서점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해요?’라고 묻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그 만큼 많이 사라져 버려 한견에서는 ‘동네서점의 위기’라는 말도 나온다. 동네서점을 운영하는 건 유 시인의 말에 의하면 ‘기적에 기적이 더해진 일’이다. 그는 “하루가 끝나면 내일 걱정을 하고, 내일을 오늘로 살면서 또 다음날을 걱정하고, 서점과 함께 보낸 5년은 매일같이 위태위태했다”고 말한다.

서점을 운영하며 만났던 사람들, 느꼈던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인 책은 ‘누군가는 하나쯤 곁에 두고 싶어하는 서점’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책에서 만나는 40여편의 글은 ‘책상’, ‘동료’, ‘시인’, ‘청굴차’, ‘낭독회’, ‘필사노트’, ‘일요일’, ‘연말’ 등 40가지의 단어

를 통해 풀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다.

책을 읽다보면 1953년 문을 연 동양서림의 2층, ‘나선계단’을 힘겹게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작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독자들(시인은 고객이나 손님이라는 말 대신 독자와 칭한다)과의 만남과 서점이라는 공간이 주는 소소한 매력에 빠져든다.

엄마 아빠와 생생기를 타고 조용히 책을 골라 살펴보고 데려갈 책을 착착 쌓는 어린이 단골 독자‘다인남’은 저자에게 어린이 독자들의 기억에 남는 서점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게한다. 신촌에서 혜화로 이사할 때 평평 울던 인근 대학교 학생들, 서점에서 처음 만나 결혼까지 한다며 찾아온 예비 부부, 시인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다며 찾아온 독자 역시 서점에서 만난 귀한 인연이다.

저자는 “독자들이 궁금해하고, 즐겨워하고 시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일을 늘 공리하고, 재미있는 일을 모색”하며 오늘날 서점에 앉아 있다. 유 작가는 시집 ‘오늘 아침 단어’,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 산문집 ‘반짝이는 밤의 날말’을 펴냈다. 〈달·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힌두교사 깊이 읽기=국내 유일의 힌두교사 전공자인 이광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과 교수가 힌두교라는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다. 여러 종교 가운데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힌두교를 30여 년간 연구해온 저자는 힌두교 형성 과정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아우르며, 힌두교의 단일신론적 성격과 범신론, 다신교적 측면을 아울러 파고든다. 〈푸른역사·2만5000원〉



▲임진무쌍 황진=언론인 출신 김동진이 ‘조선왕조실록’, ‘정비록’ 등 사료들에 흠어진 황진의 기록을 모아 팩션으로 재구성했다. 황진이 1590년 3월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부터 1593년 6월 28일 진주성에서 전사할 때까지 3년을 되살렸다. 탁월한 무예와 전술 구사력으로 임진왜란 초기 육지에서 나라를 지켜낸 전투 서사가 장대하게 펼쳐진다. 〈교유서가·1만4000원〉

▲잘 버리는 법=기후변화환경단체 GEYK 창립자와 공동대표인 김세진, 김지윤이 쓰레기에 관련된 각종 상식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준다. 거실, 주방, 음식물, 화장실에 있는 물건 348종의 쓰레기 배출 방식을 설명하며 재질의 특성과 배출 관련 이야기를 팁으로 실었다. ‘알아 둘시다’ 코너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상식과 정책 등을 소개한다.

▲주방에서 시작하는 가드닝=채소와 과일을 다시 길러 먹는 재미와 반려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을 동시에 전한다. 스물 가드닝 전문가인 저자 케이티 엘저 피터스는 당근이나 양파, 상추 등 흔히 접할 수 있는 채소로 ‘다시 기르기’를 하기 위한 토양 재배법, 수경 재배법 등을 소개하며, 집에서 직접 채소 조각과 과일 씨를 심어 다시 키우는 방법도 알려준다. 〈지금이책·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김용택 시인의 자갈길=삶과 자연, 일상 속 소박한 감동을 시로 담는 김용택 시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그림책에 담았다. 저자는 아들을 버스에 태워 보내고 빈 방패를 메고 퇴역할 속 자갈길을 부지런히 걷던 어머니와의 추억을 글로 담백하게 풀어냈다. 여기에 주리 화가의 그림이 더해져 더 큰 감동과 울림을 선사한다. 〈바우술·1만4000원〉

▲도마뱀도 아이스크림을 먹나요?=오카불가사리, 사막개미, 쟁겨루 등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의 동물들이 어떻게 여름을 대비하고 보내는지를 소개한다. 여름을 대비하는 동물들의 행동을 크게

‘신체적 특징’을 활용하는 경우와 ‘지형적 특징’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 동물 각각의 특성과 서식 환경, 그 안에 숨은 자그마한 과학 지식들까지도 두루 알아본다. 〈푸른숲주니어·1만2000원〉

▲수박=‘김영진 그림책’ 시리즈가 여름을 맞아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 이야기로 돌아왔다. 어느 날 가족들과 둘러앉아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을 먹던 그림이의 머릿속에 기가 막힌 생각 하나가 스친다. 바로 수박을 먹고 남은 수박씨를 화분에 심는 것. 아빠의 만류에도 그림이는 자신감과 기대로 한껏 부풀다. 과연 그림이의 바람대로 수박이 열릴까? 〈길벗어린이·1만3000원〉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